

케이팝을 핵심으로 한 한류의 전 세계 파급력이 거세지고 있다. 콘텐츠의 힘은 케이뷰티로도 확대되고 있다. 그 기반은 컬러 콘텐츠로 자리 잡은 각 방송사의 뷰티 정보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해외에서 인기 있는 스타들을 내세워 1차원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함께 케이뷰티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패션, 헤어, 메이크업으로 세분화한 뷰티 영역의 전문가 3인이 선두에 섰다. 이들이 '2020년 트렌드'를 전망한다. 덧붙이는 '팁'은 그야말로 '알짜'다.

## 스포티룩 입고 '민낯광' 화장...내가 패피!

〈패션피플〉



### 〈패션〉 서수경 스타일리스트 “드레시한 옷에 스포티한 운동화...믹스매치 강세”

자유분방함을 강조하는 스포티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기를 얻을 전망이다.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드레시한 옷에 운동화나 트레이닝팬츠를 활용하면 좋다. 가방 등 액세서리도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선택한다.

여기에 과감하게 믹스매치를 한다면 더할 나위 없다. 과할 정도의 러플이나 레이스가 많이 달린 의상에 스포티한 스

타일은 '계입오버'다. 컬러는 핑크 네온! 기본적으로 밝고 화사한 계열의 컬러가 주를 이룬다. 핫 핑크, 라벤더, 캔달루프(옐렌지 계열), 네오민트, 퓨리스트 블루 등 컬러풀한 색상에 눈을 돌려 보자.

●옷 잘 입는 팁  
“나 자신을 알기”, ‘윈도 쇼핑’, ‘자신감’.

세 가지만 기억하자. 첫 번째 자신의 체형을 파악해야만 잘 어울리는 옷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단점을 가리고 장점을 부각할 수 있다. 남들의 스타일을 매의 눈으로 관찰하고, 패션 관련 기사를 참조해도 좋다. 특히 볼과 여름에는 컬러풀한 의상에 꼭 도전하라. 구매가 어렵다면 눈으로 옷을 입어보자. 가장 좋은 방법은 온라인 쇼 핑돌 ‘투어’다. 가장 유행하는 스타일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 ●단! 이것만은 피해라

한 아이템이 유행해도 표현 스타일은 다양하다. 나이와 직업,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스타일을 선택하라. 30대인데 20대가 입을 법한 옷은 입을 사람도 보는 사람도 불편하다. 무엇보다 ‘TPO’(시간·장소·상황)를 거스르는 스타일은 지양하라.



### 〈메이크업〉 조성아 씨에스에이코스믹 대표 “광채피부 대세...더 대담하게 표현하라”

여자라면 자연스럽게 빛나는 광채피부를 꿈꾼다. 이를 위해서는 두껍게 커버하기보다는 본래 피부가 투명해 보이는 듯 맑고 깨끗하게 피지 빛 피부분을 만들어줘야 한다. ‘속살광’, ‘민낯광’이라 불리는 제품이 꾸준히 베이스 메이크업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베이스 메이크업을 잘 만들었다면 포인트는 더 대담하게 표현한다.

화려하고 한층 강렬해진 아이 메이크업과 톤다운된 MLBB(My lips but better·본래 입술처럼 자연스러운 톤) 컬러의 광택 없는 립 제품을 사용하면 좋다.

●화장 잘 하는 팁  
촉촉한 수분크림을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르고 커버가 필요한 얼굴 중앙

위주로 파운데이션을 발라주면 메이크업 초보자들도 깨끗하면서도 입체감 있는 광채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 본격적인 색조 메이크업 전에 치즈를 얇게 바르고 립에 혈색을 주는 맑은 틴트를 바를 경우, 전체적으로 두텁지 않은 맑고 투명한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 ●단! 이것만은 피해라

메이크업은 단점을 가리는 것이 아닌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이크업 기본 트렌드를 참고하되, 본인의 장점을 포인트로 삼고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와 제품으로 가장 ‘나다운’ 메이크업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 〈헤어스타일〉 차홍 아르더 대표 원장 “뉴트로 감성의 느슨해진 컬 웨이브 강추”

헤어스타일은 내가 느꼈을 때 편한 게 가장 좋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이 ‘코지 내추럴’이다. 코지 내추럴은 방금 미용실에서 손질한 세팅한 느낌이 아닌, 조금 느슨해진 컬 웨이브로 잘 표현된다. 남성은 직모의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곱슬 느낌을 주는 컬 웨이브를 추천한다.

최근 문화계의 화두로 떠오른 뉴트로 감성이기도 하다. 나만의 독보적인

헤어스타일을 구축하고 일상의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면 개성이 넘치는 오피 꾸뛰리 헤어스타일에 도전하는 것도 좋다.

●헤어스타일을 잘 관리하는 팁  
스타일에 변화를 줄 때 두피와 모발에 과도한 손상을 주는 스타일은 트렌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건강하지 않은 모발에 변화를 준다면 그만큼 손상도 크

기 때문이다. 펴고 컬러를 할 경우 일주일가량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주름이 생기는 광노화나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삼가거나 모자를 이용하고 올바른 샴푸 방법으로 데일리 케어를 잘 한다면 스타일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 ●단! 이것만은 피해라

유행을 따른다는 것은 시대를 읽는

즐거움이 되지만, 너무 쫓다보면 개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트렌드인 ‘소신 소비’처럼 평소 하지 못했던, 아니면 해보고 싶었던 것에 도전하자. 기장이나 컬러에 큰 변화를 주기보다 사용 제품을 바꾸거나 이너 뷰티로 두피와 모발에 도움이 되는 헤어 제품을 통해 내면과 외면에 건강한 느낌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리 |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탈북자도 깜짝 놀란 ‘사랑의 불시착’

(tvN 드라마)

기존 로맨스와 달리 북한 배경 흥미 아랫동네·김치음...실감 묘사 극찬

“손예진과 현빈은 북한에서 사랑을 이룰까?”

안방극장에서 대립과 긴장의 상징으로 비쳤던 북한이 ‘핑크빛’으로 물들고 있다. 무대는 최근 방송 중인 tvN ‘사랑의 불시착’이다. 패러클라이딩 사고로 북한 땅에 떨어진 재벌가 상속녀 손예진과 북한 장교 현빈의 로맨스가 북한을 배경으로 펼쳐지며 시청자 시선을 모으고 있다.

시청자 사이에서는 보기 힘든 ‘남북 로맨스’에 ‘신선하다’는 반응이 쏟아진다. 인천 시 연구에 사는 김명숙(58) 씨는 “다른 로맨스 드라마는 결과를 예상하기 쉬운데, ‘사랑의 불시착’은 북한이란 배경 때문에 그렇지 않다”며 “주말마다 20대 딸과 함께 각종 추측을 하며 ‘분방사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로맨스 이야기라는 색다른 조합에 전문가들도 호기심 어린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드라마 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교수는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로맨스 드라마에서는 필수 요소다. 주로 신분의 차이, 숨겨진 가족 관계 등이 그런 역할을 해왔

다”면서 “하지만 ‘사랑의 불시착’에서는 그 자리를 ‘북한’이 대신하면서 극적인 재미를 더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중 손예진과 현빈을 각각 남북한의 또 다른 상징으로 해석한다면 로맨스를 넘어 체제의 문제까지 분석의 시야를 확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극중 북한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이 보여주는 풍경이 최근 방송가에서 주목 받은 ‘청정 로맨스’의 계보를 잇는 평가도 있다. 작년 KBS 2TV ‘동백꽃 필 무렵’이 가상의 바닷가 마을 웅산에서 펼쳐지는 로맨스를 담아 큰 인기를 끌었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주로 도시에서 펼쳐지는 로맨스 장르를 소박한 북한 마을을 배경으로 하면서 신선함을 자극한다”고 평가했다.

‘아랫동네’(남한) 물품들을 몰래 사고파는 장마당, 김치냉장고 개념의 ‘김치음’ 등 북한 주민들의 생활 이모저모를 녹인 장면들도 시청자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물론 안 보조사가를 비롯한 수많은 탈북자를 취재한 박지은 작가의 노력이 빛을 곁다. 탈북자 출신인 주성하 동아일보 북한전문 기자는 최근 SNS를 통해 “고중이 장난이 아니다. 자못한 사람들 누구냐”며 이 드라마의 실감나는 북한 묘사를 극찬하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남녀주인공의 뛰어난 로맨스 호흡과 함께 ‘장마당’ ‘김치음’ 등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엿보는 재미도 꾸준히 안긴다. 사진제공 | tvN

### 연예뉴스 HOT 4

#### 주진모, 문자 속 피해 여성들에게 사과



주진모

사생활이 담긴 문자 메시지 유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연기자 주진모가 “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인과 팬들, 그리고 메시지에 언급됐던 여성들에게 죄송하다”고 16일 사과했다. 주진모는 이날 소속사 화이브라더스를 통해 “두 달 전쯤 해커들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왔다. 불법해킹으로 취득한 제 개인정보를 보내며 접촉해왔을 때 당황스러움을 넘어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삶을 뒤돌아보고 반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진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측은 해킹·공갈 혐의로 해커들을 고소할 방침이다.

#### BTS ‘맵 오브 더 솔:7’ 최다 선주문

2월21일 선보이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맵 오브 더 솔:7’의 선주문량이 342만장을 넘어섰다. 16일 방탄소년단의 앨범 유통사인 드림어스컴퍼니에 따르면 사전주문을 받기 시작한 9일부터 15일까지 7일 동안 총 342만 장에 달했다. 이는 국내의 선 주문량을 집계한 수치이며, 방탄소년단의 앨범 가운데 최다 선 주문 수량이다. 미국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Amazon)을 통해서도 해외 예약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예약 판매 첫날부터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이후 8일째인 이날까지 1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 엑소 팬클럽, SM에 첩 퇴출 시위 경고

그룹 엑소의 멤버 첩이 결혼 계획을 밝힌 가운데 그의 팀 탈퇴를 요구해온 팬들이 시위를 경고했다. 엑소의 공식 팬클럽인 EXO-L ACE(연하(엑소 엘))는 16일 성명을 내어 “첩이 엑소 멤버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지지 철회를 선언한다”면서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첩을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8일까지 답변이 없을 시, 간접적 형태의 시위도 감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첩은 13일 비연예인과 결혼한다는 사실과 함께 연인의 임신 소식을 알렸다. 이후 축하와 비난의 팬덤이 얽히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왔다.

#### CGV ‘골든글로브 어워드’ 기획전

올해 미국 골든글로브 수상 및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자인 ‘기생충’을 극장에서 다시 만난다. CJ CGV가 21일(이하 한국시간)까지 전국 18개 극장에서 ‘2020 골로브 어워드 기획전’을 열어 6일 골든글로브 수상작과 2월10일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 주요 후보작을 상영한다. ‘기생충’은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을 받았고, 작품·감독상 등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기생충’은 ‘조커’, ‘월스 여폰 어타임...인 할리우드’ 등과 함께 다시 관객을 만난다. 또 작품상 등 아카데미 10개 부문 후보작 ‘1917’을 비롯해 ‘작은 아씨들’, ‘주디’ 등도 선보인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